

었다.

⑧ Esophageal cancer로 trachea extension 경우 airway가 불규칙하게 좁혀 있는 것이 관찰된다.

⑨ Intrathoracic goiter의 경우 airway의 smooth narrowing이 관찰된다.

⑩ Trachea neurogenic tumor의 경우 intraluminal mass가 round하게 보인다.

[결론]

MPVR 및 3-D는 Tracheobronchial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pathologic lesion의 longitudinal 평가와 수술시 surgeon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한 검사로 사료된다.

<25>

응급 다발성 외상환자의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단방사선과
유병규 · 권영갑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적발전과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치명적 다발성 외상을 받은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발성 외상환자의 응급처치에 관해 미국외상학회(ACS : American College of Surgery)에서 규정한 전문 외상처치술(ATLS : Advanced Trauma Life Support)에 근거한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와 그 의의를 알아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만 1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환자 중에 의식이 흐릿한 다발성 외상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평균 연령은 37.6세 였다.

동 기간중 내원한 총 응급환자는 30,085명이었고, 이중 외상환자는 모두 2,208명(7.3%)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미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및 전원환자 그리고 응급센터에 도착전 사망(DOA : death on arrival), 도착후 사망(DAA : death after arrival)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157명(7.1%)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실기록지와 전산화단층촬영의뢰장부, 입원기록지 등을 참고로 하여 후향적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내원 시간별 분포, 사고원인별 분석, 전산화단층촬영의뢰율 분포 등을 조사하여 비교 하였다.

[결과]

대상환자 157명 중 남자가 113명(72.0%), 여자가 44명(28.0%)으로 남녀 비는 2.57 : 1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31세에서 40세 사이가 44명(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6세이었다. 내원 시간별 분포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58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원인별로는 자동차관련 교통사고가 112명(71.3%)으로 제일 많았다. 전산화단층촬영은 109명(69.4%)을 골반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하였으며, 두부 81명(51.6%), 흉부 62명(39.5%), 경추는 38명(24.2%) 촬영하였고, 두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위에서는 촬영의뢰율과 이상소견율이 거의 일치 하였다.

[결론]

의식이 흐릿한 응급 다발성 외상환자에 있어서 기본적 방사선 촬영부위로는 흉부(chest AP view), 경추(cervical spine lateral view), 골반(pelvis AP view)의 세 가지 촬영이 꼭 필요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이동촬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6>

조영제의 구성성분과 특성비교 및 부작용 발생률에 대한 통계비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진단방사선과 조평곤·김형철·이경숙·신동식·이창엽

[목적]

본원 C.T.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영제의 구성성분과 특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이 제조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위와 부작용 발생율과의 관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먼저 조영제의 구성성분과 특성은 조영제별 구성성분의 농도, iodine농도, 점도, 삼투압, pH, 비중 등을 비교하였고, 물리-화학적 특성은 분자구조식, 화학명, 분자식, 분할계수, 분자량 등을 비교하였다. 부작용 발생율에 대한 통계조사는 93년 1월부터 96년 2월까지 3년 2개월치를 통계자료로 하여 이 기간 중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 18,09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검사부위별, 연도별, 조영제별, 부작용종류별,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부작용 발생율에 대한 결과치를 얻었다.

[결과]

그 결과 조영제의 부작용 발생율을 보면 검사부위별, 두경부 0.58%, 복부 0.53%, 흉부 0.41%, 연도별, 93년 0.41%, 94년 0.45%, 95년 이후 0.77%, 조영제별, A 0.68%, B 0.60%, C 0.35%, 부작용종류별 구토 0.96%, 알러지 0.38%, 담마진 0.16%, 호흡곤란 0.13%, 어레스트 0.02%, 연령별 10세 이하 0.39%, 10세~19세 0.27%, 20세~29세 0.49%, 30세~39세 1.22%, 40세~49세 0.64%, 50세~59세 0.48%, 60세~69세 0.42%, 70세 이상 0.20%, 성별로는 남자 0.52%, 여자 0.58%로 나타났다.

[고찰 및 결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C.T.검사를 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조영제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 조영제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작용에 대한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조영제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리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독성작용이 없으면서 우수한 X-ray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 조영제는 혈관 내에 전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고, 세포막을 침투해 들어 간다든지 BBB를 통과해선 안되며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빠르게 배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완벽한 조영제 조건을 갖춘 조영제는 없다. 본원 C.T.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영제의 구성성분과 특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비교와 부작용 발생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조영제별 우수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27>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단방사선부문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차곤·오문영

[목적]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의료기술의적 서비스의 여러 분야 중 환자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병원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부산지역 4개 3차진료기관 진단방사선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4개 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 내원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환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 417명을 최종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유효응답률은 83.4%이다.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①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② 진료과별 분포 ③ 검사횟수별 분포 ④ 병원선택요인 ⑤ '95 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식도 및 실시 후의 기대치 ⑥ 진료 수속절차의 평가 ⑦ 대기시간의 평가 ⑧ 촬영순서의 평가 ⑨ 예약대기일수의 평가 ⑩ 친절도와 신뢰도의 평가 ⑪ 시설과 환경에 대한 평가 ⑫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의